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제3대 담임 목사 취임

원로목사 추대 된 민중기 목사
“과분하게 받은 사랑 평생 갚으며 살겠다”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지난 4일 충현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2002년 충현선교교회에 2대 목사로 부임해 20년간 섬긴 민중기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국윤권 목사가 충현선교교회 제 3대 담임으로 취임했다.

민중기 목사는 충현선교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해 '불고기맛 비전을 세우고 장년교육·차세대교육·선교를 모토로 목회해왔다. 불신자를 전도해 복음으로 양육해 영혼의 내면과 가정을 치유하며 훈련해 성숙한 신자로서의 성장을 돕고, 세속화되는 문화 앞에 맞서 세상을 이긴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실천해왔다.

이날 인사를 전한 민중기 목사는 “1988년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평신도로 인연을 맺은 충현선교교회는 지난 34년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교수가 되고 싶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 주셨다”면서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과 기도 속에서 충현선교교회의 20년간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시편 116편 7자의 고백이 저의 지금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사

랑의 빛을 갚고 싶다”며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와 장로 권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돌린다”고 말했다.

충현선교교회 3대 담임으로 취임한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섬리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성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축사를 전한 복음방송 이영선 목사는 “20년간을 지켜본 충현선교교회의 과정과 오늘의 결실을 볼 때 이민교회에 건강한 교회로 손꼽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신앙공동체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교인감소와 재정압박의 수 많은 어려움으로 환란을 겪을 것이다. 충현선교교회가 3년 뒤인 40주년에는 이민교회의 모델의 제시하게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1부 예배 2부 국윤권목사 위임식 3부 민중기 목사 위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민중기 목사의 인도로 김광호 장로가 기도하고 잠인 25장 13절 본문으로 나성영락교회 원로 박희민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식 ©기독일보

로 말씀을 전했다. 박희민 목사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고린도교회처럼 충현선교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시원케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설교했다.

이어 국윤권 목사가 충현선교교회 교인들과 박규성목사(KAPC 서남노회 위임국장)앞에서 서약과 안수, 안수례 순서로 민중기 목사가 국윤권목사가 충현선교교회 3대 목사가 된 것을 발표했다.

이어 국윤권목사가 사역했던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했고 박규성 목

사가 담임목사 위임패 및 선물을 증정했다.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국윤권 목사의 인도로 이준우 장로(충현선교교회 당회 부서기)가 원로목사 추대사를 낭독하고 국윤권 목사가 민중기 원로목사의 추대를 공포했다.

이어 올림픽 장로교회 원로목사인 정장수 목사가 권면을 전했고 평안교회 원로목사인 송정명 목사가 축사를 각각 전했다. 국윤권 목사가 원로목사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충현선교교회 교역자부부의 특송이 이어졌다. 모든 예배는 살롬교회 김준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美 개신교 목회자 48% “성탄절 이브 예배 출석률 가장 높아”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개신교 목사의 거의 절반은 성탄절 이브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밝혔다. 또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12월 초에 열리는 행사 출석률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48%)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꼽았다. 설문조사 참여자에는 교회의 담임목사나 또는 섬기는 목사가 포함됐다.

반면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 중 7%만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성탄절 예배를 언급했다. 목회자 가운데 26%는 12월 셋째 주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으로 꼽았고 10%는 12월 둘째 주에 열리는 행사를 꼽았다. 6%는 1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목회자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소속 교단, 교회의 평균 출석률, 목회자의 나이, 민족, 성별, 교육 수준에 따라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기도 했다.

루터교 목사의 84%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말했다.

대조적으로 루터교 목사의 7%만이 12월

셋째 주에 열리는 행사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꼽았다. 오순절과 목회자(45%),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목회자(37%), 침례교 목회자(35%)의 상당수가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모임으로 12월 셋째 주 행사를 꼽았다.

주류 교단 목회자의 60%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밝혔다. 복음주의 목회자의 44%가 같은 대답을 했다. 복음주의 목회자의 30%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로 ‘12월 셋째 주 행사’를 선택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메디칼그룹의 모델촬영을 알려드립니다.

이영훈 목사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가 지난 4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믿음의 역사”(히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일궈낸 여의도순복음교회故 영산 조용기 목사의 믿음의 삶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자고 독려했다.

이 목사는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인데,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며 “꿈에 이끌려 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나이는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주는 어두운 소식이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임하게 된다”고 했다.



나성순복음교회서 LA 축복성회 인도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기독교일보

또 “저는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 성경 20-30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며 “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

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궈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며 “예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써 나가자”고 전했다.

그는 또 “21세기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선교적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고 했다.

2005년부터 1년 넘게 나성순복음교회를 담임하기도 했던 이영훈 목사는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나성순복음교회가 미국과 중남미 복음화에 쓰임 받는 선교센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나성순복음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정홍은 목사(순복음성동교회),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동욱 기자



만남의교회에서 진행된 2022 벨리교협 성탄연합예배

샌퍼난도벨리 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신바나바 목사, 이하 벨리교협)가 주관한 2022 벨리지역 교회 성탄연합예배가 지난 4일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목사)에서 진행됐다.

1부 예배와 2부 성탄축하 찬양제, 3부 장학금 수여식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전지승 목사(벨리교협 총무)의 인도로 김인식 목사가 기도하고 이정현 목사가 ‘예수 그 아름다운 선물’(요 10:14-1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022 벨리교협 성탄연합예배, 장학생들과 기쁨 나눠

이어 최주철 목사(벨리교협회계)의 봉헌 기도 후, 벨리지역 한인교회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성탄 특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예배는 문광현 목사(벨리 원로 은퇴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성탄축하 찬양제는 이정현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최준희 성도가 디지털 호른으로 “Carols Medley”를 연주했으며, 이경호 목사가 “오 거룩한 밤”을 은혜롭게 불렀다. 서홍석 성도가 “O Holy Night”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으며, 김현주 성도가 “거룩한 성”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다.

벨리교협은 올해도 13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벨리교협 신바나바 회

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의 희망이 되는 한인 신학생과 일반 대학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3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서준은 목사(벨리교협 부회계)가 광고하고 조남민 목사(직전 교협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금번 장학기금은 벨리교협 임원 일동과 온유한교회,벨리생명의교회,만남의교회,에브리데이교회,에버그린선교회,은혜와평강의교회,벨리코리안뉴스,벨리메거진, Valley Ace Dental Group (Hong Suh, DDS), Simi Ob-Gyn (Cathy Kim, MD)이 협찬했다. 김동욱 기자

“추수감사절에 모인 청년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

제5회 미국장로교 한인총회(NCKPC) 전국 한인청년 연합수련회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한미장로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추수감사절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수련회는 ‘예수님을 통한 자아 발견(회개)’을 대주제로, ‘깊은데로(누가복음 5:1-11)’를 소주제로 열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 제자 양성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조별 미션과 은혜의 밤, 헌신의 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서 노재왕 목사(삼패인 어바나 한인교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각자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면서 “미래의 내

가 현재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자”고 설교했다.

주강사로 나선 김현명 목사(부산 남천교회/공감 미니스트리 대표)는 ‘깊은 데로’,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저녁 집회를 인도했다.

김현명 목사는 “삶에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자신의 이웃으로 사랑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양사역자 신은영 전도사는 찬양 간증 집회에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항상 기뻐해

등의 찬양과 함께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찬양하자”고 도전했다.

‘신앙과 삶’을 주제로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윤환 집사(퍼듀 대학교 교수, 퍼듀 한인장로교회)는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항상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폐회예배 설교를 전한 이명구 목사(먼시 한인장로교회)는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



한미교회에서 개최된 미국장로교(PCUSA) 전국 한인청년 연합수련회

자”고 독려했다.

미국장로교 NCKPC 전국청년연합수련회 준비위원장 노재왕 목사는 “코로나의 강을 건너 3년 만에 전국청년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베데스다대학교 제11대 총장에 김판호 박사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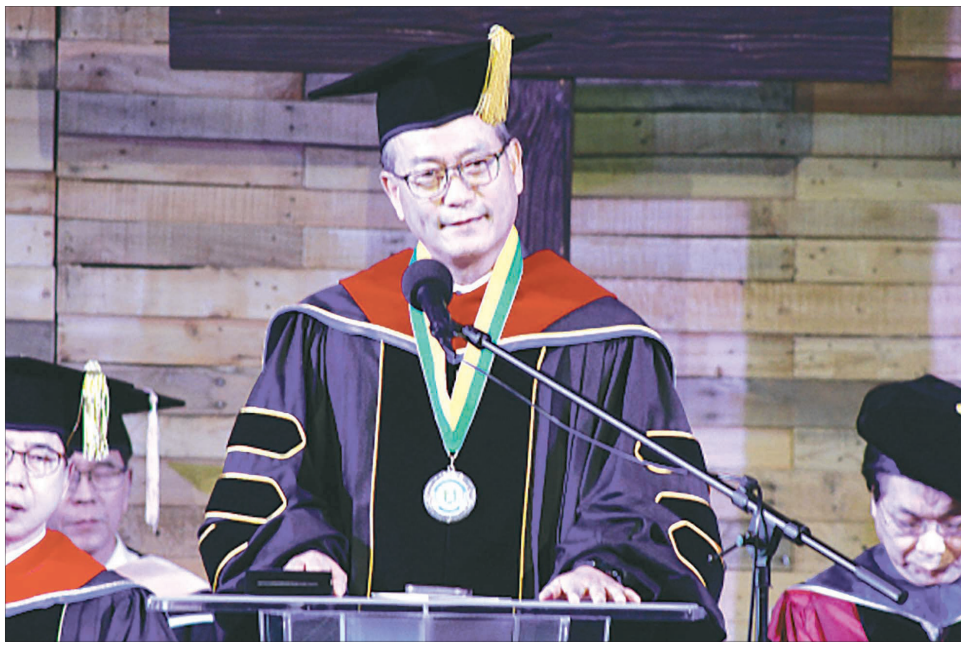
남가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베데스다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판호 박사(63)가 취임했다.

지난 5일,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판호 박사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 교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은 대학, 규모가 작더라도 강한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학교의 비전과 미래 교육 방향을 구체화 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학교 재정 확충과 수익 증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호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세대학교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영산신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국제신학연구원 교육연구소장과 외국어 예배국장, 교회 성장국장, 순복음 교육원장, 선교 개척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도미한 그는 순복음시카고교회에 부임해 지난 8월까지 목회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세계선교 일환으로 1976년 고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베데스다대학교는 우수성과 전인성을 겸비한 기독교 지도자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베데스다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판호 박사가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다. ©기독일보

종합대학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다. 2001 미국신학대학협의회(ABHE)로부터 학부과정 학위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TRACS)로부터 대학원 과정 학위인증을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는 베데스다대학교 이사장 김경문 원로 목사(순복음정동교회)를 비롯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순복음도봉교회 김용준 원로 목사, 순복음분당교회 황선욱 원로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영우 원로 목사 등 학교 이사들이 참

석했다.

취임 예배는 진유철 목사가 기도하고 황선욱 목사의 성경봉독 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적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빌2:1-3)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의 삶이자 섬기는 삶이었다. 많은 리더들이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남을 생을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이어 “베데스다대학은 설립자

이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 각 지역을 다니시며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는데,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을 모아 시작된 곳”이라며 “베데스다대학을 세우신 뜻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세계를 복음화를 앞당기는 베데스다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문 원로 목사는 “훌륭한 신학자이자 존경 받는 목회자인 김판호 목사님께서 베데스다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학교의 큰 발전이자 기쁨”이라며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뒤로 기도하면서 베데스다대학의 건학 이념을 따라 민족과 세계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 양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한 김용준 원로 목사(도봉순복음교회)는 “베데스다대학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길 바란다”며 “유형의 자산을 드러내기보다 학생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능력이 드러나는 무형의 유산이 넘쳐나는 대학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한 조민제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꾸준한 후원을 통해 미주 선교 중심으로 성장한 베데스다대학이 설립자 고 조용기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제2의 도약을 하길 바란다”며 “대학의 발전과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이사진들도 함께 돕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신대, 한목상 · 한기상 업무협약 체결



좌부터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한기상 오화철 회장, 한목상 김기철 회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는 지난 26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에서 개최된 한국목회상담협회(이하 한목상)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한기상)의 통합식에서 두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목상과 한기상은 한국 내 가장 대표적인 두 기독교 상담학회로 이번 통합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학회가 보유한 수준 높은 전문 상담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한목상과 한기상은 미주장신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연구 내용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 개최 및 연구, 지부설립과 및 공동 세미나 개최, 기관인증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협력 등 공동 사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장신대 상담학과 학생들은 두 기관이 발급하는 1급 및 2급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미주장신대를 중심으로 한목상과 한기상의 지부를 남가주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미주장신대는 현재 상담심리 석사(M.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외에도 결혼

과 가정치유학 석사(M.A.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과정과 전문코칭 석사(M.A.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과 교역학 석사 전문원목 집중(M.Div.-Professional Chaplaincy)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웨스트민스터 경찰들에 점심 제공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지난 2일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을 방문해 경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다양한 한식과 BBQ로 경찰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 음악회 기대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합창단(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의 제9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오는 11일(주일) 저녁 6시, LA 한길교회(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올해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은 성탄의 기쁨과 환희를 수준 높은 연주와 풍성한 화음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음악회 전반부에는 존 루터의 화려한 음악 글로리아(Gloria)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비화성을 사용해 예수 탄생의 신비로움을 극대화시킨 O Magnum Mysterium을 비롯해 바흐의 Jesu, Joy of Man's desiring 등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연주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라크마 장학생으로 선정된 연주자들의 협연도 기대해 볼만하다. 올해 1등 수상자로 선정된 김재영 피아니스트는 오늘날 컨서바토리, 줄리아드, 메네스를 거쳐 현재 USC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게 된다.



지난해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에서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가 훌륭한 연주를 선보인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2등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포드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영재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현재 플러튼 칼리지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으며,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보석의 노래, 도니체티의 오페라 Anna

Bolenadp 나오는 Come, innocente giovance를 연주하게 된다.

3등 수상자인 메조 소프라노 조지영은 현재 웰드미션 대학교에서 박인수 교수의 사사로 성악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에 나오는 유명한아리아 "O don fatale," 그리고 "O Holy Night"을 연주하게 된다. 주니어 음악 영재로 선발된 안현진 군은 현재 콜번 영재프로그램 7학년에서 재학중이며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을 연주하게 된다.

윤임상 감독은 "올해에도 역경을 딛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쌓고 있는 4명의 훌륭한 위너들을 선정하게 됐다"며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계절에 음악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주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에 대한 문의는 562-480-8426로 하면 된다.

한편 라크마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사명 아래 2012년 창단되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음악회의 수익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음악 전문인들의 단체이다.

김동욱 기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목사 안수식 "영혼 구원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목사 안수식. 앞줄 가운데 이대혁 목사, 이명숙 목사. ©기독교일보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안현 목사)는 지난 5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신입 목사 2명이 안수를 받았다. 이날 안수 받은 이대혁, 이명숙 목사는 목사 부부로, 한 날 한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 은혜를 누렸다.

목사 안수식은 윤희용 목사의 사회로 이성자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안현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입니다"(딤후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현 목사는 "목사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붙들고 목회의 길을 나아가길 바란다"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했다.

안 목사는 "목사는 잘 되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안 되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며 "사람을 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수 위원으로 섬긴 선배 목회자들은 목사로서 첫 발걸음을 시작한 후배 목회자들을 마음껏 축하하며 악수례를 베풀었다.

안수자 대표로 답사한 이대혁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다"며 "남은 생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몸부림 치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안수식은 이정환 목사가 권면을, 주권태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김충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연말 후원자 영수증 발행 관련 무료 현장 강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대표 제임스 구 목사)는 오는 14일(수) 오후 4시부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1701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미라클 센터 MC310 강의실에서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연말 후원자 영수증 발행 관련 무료 현장 강의'를 진행한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기존의 비영리 단체 설립 및 IRS와 주정부로부터 세금 면제 승인을 받는 절차와 함께 연말 후원자 영수증 발행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번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교회행정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제임스 구 교수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하고 있다.

강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강의와 관련한 기본 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393-4595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2022 동부한인교회연합 성탄연합찬양제 성황



동부사랑의교회 찬양단 ©기독일보



선한목자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유니온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나성한미교회찬양단 ©기독일보



선한청지기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좋은비전교회 찬양팀 ©기독일보



아름다운교회 찬양단 ©기독일보



남가주장로중창단 찬양 ©기독일보



Seryung Chung 집사 첼로특주 ©기독일보

동부한인교회연합(회장 우영화 목사)가 지난 4일(주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 본당에서 2022년 동부한인교회연합 성탄연합 찬양제를 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송축했다.

팬데믹 여파로 남가주지역 교회 성탄연합 찬양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엘에이 동부지역 10개 교회가 연합해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김병학 목사(주님의 교회 담임)의 사회로 열린 찬양제는 우영화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가 대표기도하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가 마1:18-21절을 본문으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란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성가제는 남가주 장로중창단이 "은혜, He Touched Me"를 불러 성가제의 문을 열었다.

나성한미교회 찬양팀이 '찾아오신 예수, 문들어 머리들라'를 불렀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찬양팀은 자작곡인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지이다, 작은자의 기도'를 불러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동부사랑의교회 찬양팀이 '여호와와 위대하다, 탄일 종 올리네'를 부른 후 1부 성가제가 마쳤고 Calvin Park 집사가 색소폰 특주연주로 2부 성가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이 '참 반가운 성도여, 송축해 내 영혼'의 찬양을 불렀고 선한청지기교회팀이 "사랑이 오셨네, 주는

만왕의 왕'을 노래했다. 아름다운교회 찬양팀이 '빛난 별빛 언덕에, 송축해 내 영혼'을 부른 후 유니온교회 찬양팀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예 오셨네'를 불렀다. 마지막 찬양팀으로 좋은비전교회가 Days of Elijah, 은혜'로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지난 1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

래했다. 이어 봉헌송으로 Seryung Chung 집사가 스페셜 첼로 특주를 연주했으며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 교회)가 헌금기도 했다. 우영화 목사의 광고에 이어 고태형 목사(선한목자 교회)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법원의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광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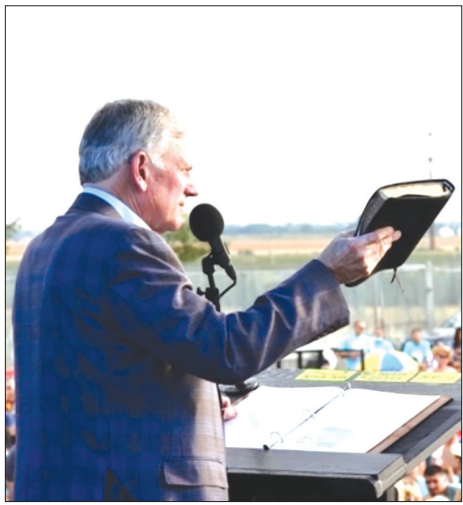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동성결혼 보호법’ 상원 통과…복음주의 “교회에 위협”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BGEA)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29일 상원에서 통과된 ‘결혼존중법’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

하고 남녀 간의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경고했다. 그레함 목사는 상원 표결을 이틀 앞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존중법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교회,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법안) 이름은 연막이다. 매우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이 법안을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비유하며 “물가 상승을 눌러 미국 경제를 더욱 해칠”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그레함은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동성 결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반면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믿는 우리를 보호하진 못한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을 존중하는 개인, 교회, 단체에 반하는 위협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 결혼 권리를 연방법에 포함시킨 이 법안은 이달 초 상원에서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에 ‘종교적 자유 수정조항(religious freedom amendment)’을 추가하더라도 전통적 결혼을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반면, 그레함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이 제안한 수정 조항이 결혼존중법을 “개선헌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위해 매우 필요한 보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 권리를 확정한 2015년 미국 대법원 판결인 ‘오버저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는 연방법으로 성문화된다. 또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방어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연방 차원에서 공식 폐지된다.

지난 7월, 결혼존중법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47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모든 주가 “개인의 성별,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적을 기반으로 두 개인의 결혼과 관련된 다른 주의 모든 공적 행위, 기록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해 전적 믿음과 신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앞서 CP에 기고한 사설에서 이 법안이 “미국에 박해의 문을 열고 있다”고 경고했다.

퍼킨스는 “주류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도덕적 진실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본다”라며 “한때 언론과 종교의 자유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서방은 미국을 번영하게 한 기초에 대해 병담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유진 기자

올해 최다 공유 성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올해 유버전 앱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은 최근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2년 올해의 말씀’을 공유했다.

유버전의 설립자이자 CEO인 바비 그룬월드(Bobby Gruenewald)는 “이 구절이 가장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우리의 열망 때문”이라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했다.

유버전은 또한 우크라이나어 버전의 동향도 전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어 버전 참여가 ‘급상승’한 것을 목격했다고.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성경 참여는 올해 55%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241%, 독일에서는 733% 증가했다.

유버전은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어에서 상위 검색어는 대부분 ‘전쟁’, ‘두려움’, ‘불안’과 같은 단어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룬월드 CEO는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위안, 평화, 희망을 위해 성경에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성경 자주 읽는’ 미국인들, 작년에 1천억불 이상 기부

미국성서공회, ‘성경현황보고서’ 타그룹 비해 압도적 기부

성경에 열심을 가진 미국인이 지난해 교회 및 자선 단체에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자선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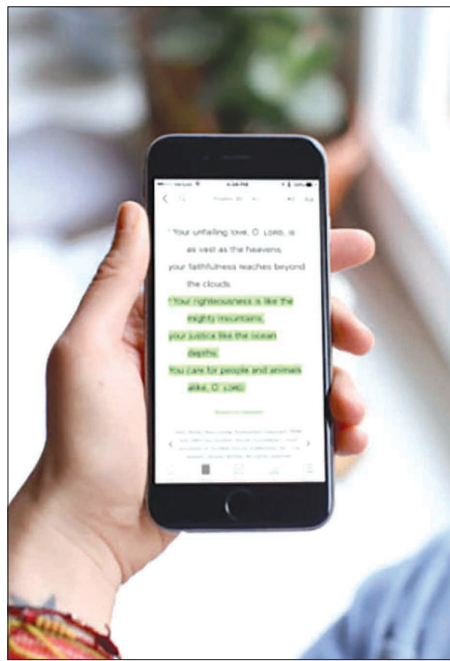
미국성서공회(ABS)는 이달 초 기독교인과 미국인 전체의 자선 기부 습관을 비교한 연례 “성경 현황(State of the Bible)” 보고서 8장을 발표했다.

이 설문 조사는 “성경 사용 빈도와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심성”에 관한 응답을 기반으로 성경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지난해 총 1450억 달러를 자선 사업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성인 2598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성경을 자주 읽는 미국인의 자선 기부는 작년 기부액의 44%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2941달러를 기부했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기부금 대부분은 교회, 교구 또는 사원에 사용되었다. 특히 예배당에 대한 평균 기부금은 2124달러이며, 그 밖에 국가 종교 자선 단체(344달러), 타종교 단체(277달러), 지역 비종교 자선단체(162달러)에 기부했다.

유동적인 허리층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예배당에 평균 335달러를 기부했고, 이어 타 종교단체(168달러), 지역 비종교 자선단체(85달러), 국가 종교 자선 단체(43



유버전 성경 앱. ©Life.Church

달러) 순이었다. 반면, 성경과 무관한 응답자들은 기부금의 대부분(406달러)을 예배당 외의 종교단체에 기부했으며, 이는 예배당에 기부된 평균 금액(163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 열심인 미국인들은 응답자 그룹 중 기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1년 성경에 열심인 미국인의 80%가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며, 유동적인 허리층은 68%, 성경에 무관심한 미국인은 53%가 기부했다.

또 성경에 열심인 미국인 중 과반수

(58%)는 2021년 자선 단체에 최소 210달러를 기부했으며, 24%는 210달러 미만, 나머지 18%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실천적인 기독교인은 비실천적인 그룹보다 더 많은 수가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2021년 실천적 기독교인의 10명 중 8명(81%) 이상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데 비해,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61%, 비기독교인은 52%가 기부했다.

연령별로는 작년 미국 노인 응답자의 84%가 기부했다고 밝혔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73%, X세대 61%, 밀레니얼 세대 53%, Z세대는 절반이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인이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하버드대에서 개발한 ‘인간 번영지수(Human Flourishing Index)’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의미와 목적’, ‘성격과 미덕’, ‘친밀한 사회적 관계’, ‘재정 및 물질적 안정성’에 대해 측정한다.

그 결과, 지난해 자선단체에 210달러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은 인간 번영지수 10점 만점에 평균 7.6점을 받았다.

또한 1년에 최소 3~4회 이상 성경을 읽는 미국인 중 과반수(55%)는 “성경을 읽은 결과, 내 시간과 에너지, 재정 자원에 대해 더 관대해졌다”라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자선 단체에 최소 210달러를 기부했으며, 19%는 210달러 미만을, 나머지 26%는 기부하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미국인 10명 중 9명, 뉴에이지 사상 “하나 이상 믿는다”

유고브 美 성인 1천명 대상 여론조사...87% “업보는 존재”

미국인 10명 중 약 9명이 성경과 반대되는 ‘뉴에이지 강신술’에 속하는 신념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믿고 있으며, 4명 중 거의 3명이 환생, 평행현실, 텔레파시를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 8월 미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뉴에이지 강신술(new-age spiritualism)’에 속하는 20가지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87%)들은 카르마(Karma, 업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믿음 중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마는 이생이나 내세에서 사람의 행동이나 행실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미국인의 거의 절반(45%)은 “뉴에이지 강신술” 중 “최소 5가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에 유고브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많은 원칙들이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세계관의 신념들과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미국인의 55%는 “카르마가 실

재한다”고 믿는 반면, 41%는 최면술을 믿었고, 39%는 UFO/외계인, 29%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 상응하는 긍정 또는 부정적 경험을 가져온다는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을 신뢰했다.

미국 성인의 27%는 환생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26%는 점성술을, 24%는 평행현실, 24%는 텔레파시를 믿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8%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견해에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자연과 조화된 삶, 마음과 몸, 정신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인의 28%는 범신론(patheism)으로 알려진 뉴에이지 신념인 ‘모든 것은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강력히 동의” 했으며 22%는 “다소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24%는 이 의견에 “강력히 반대” 했으며 10%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인의 38%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22%는 종교가 그들의 삶에



뉴에이지 강신술 중 하나인 타로카드. ©Petr Sidorov/ Unsplash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미국인들은 뉴에이지 사상은 널리 수용하는 반면, 심리 상담가, 타로카드 해석자, 점쟁이와 같은 과거나 미래를 보는 능력과 연관된 현상은 덜 받아들였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56%)은 “타로 카드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5%만이 신뢰했다. 또 다른 42%는 대체 의학에 대해서는 지지한 반면, 에너지 또는 진동 치유(18%), 치유 크리스털 사용(14%), 레이키(우주에너지) 치유(11%)를 신뢰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 이하였다.

그러나 명상과 마음챙김(Mindfulness)은 각각 26%, 21%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

고, 필라테스, 태극권 등은 미국인의 6% 이하만이 참여했다.

심리학 및 종교백과사전(EPR)에 따르면, 뉴에이지 신념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영미 단체들이 지구에 새 시대를 가져올 다른 행성의 지적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데서 유래했다.

대개 뉴에이지 사상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의 장면과 유사한 종말론적인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EPR에 따르면 뉴에이지는 그 시기에 평화, 번영 및 영적 진화의 “새 시대”가 도래하지만 “새로운 의식에 적응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 예고한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술이나 타로카드 등의 뉴에이지에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왔다.

2017년 CP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점점 더 신비주의 영성과 점성술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무교인 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마켓워치(MarketWatch)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심령 서비스 산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 성장하여 전체 규모만 20억 달러에 달했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언어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목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 주안여성결교회

83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구 오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회 저녁 7:00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회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트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형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9:00
 금요성령부 목요일 저녁 7:00
 성령기도회 목요일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정민 담임목사

새생명감사교회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T. (626)773-11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부 목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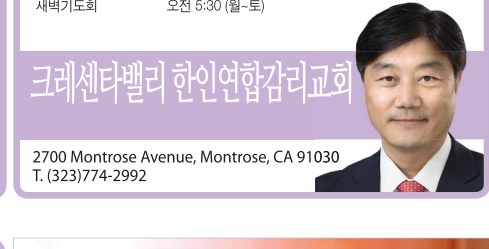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종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27)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진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새벽) 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현정성당예배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이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름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성공회 “2021년 세례교인 6만명 감소... 서약금 수입은 3% 증가”



미국 성공회 소속 건물인 워싱턴국립대성당. ©워싱턴국립대성당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성공회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교인 숫자와 예배출석률이 계속해서 감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통계에는 주당 평균 예배출석률, 세례교인 수, 재정 수치 등이 포함된다.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성공회의 세례교인은 약 167만 8천명으로 2020년 보고된 173만 6천명보다 6만 명 가까이 적다.

미국 성공회 교단의 2021년 교인 수는 주류 개신교 교단의 세례 교인이 2백만 명이 넘는 2012년보다 거의 40만 명이나 적었다.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도 감소해 2021년에는 평균 약 31만 2천명의 예배 참석자가 보고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48만 3천명이었다. 2021년 참석자 수는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크게 대조되었으며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는 54만 7천여명이었다고 보고됐다.

성공회뉴스서비스(ENS)는 지난 11월 22일 통계를 발표하면서 보고된 숫자 중 일부는 여전히 “낙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NS는 “활동적인 세례 교인의 수는 2년 연속 3% 이상 감소했지만 최근의 추세와 거의 일치하며 다른 주요 개신교 교단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염병은 계속되는 서약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성공회

평균 서약금은 2021년 3천339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체 서약금 수입은 올해 3%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제프 윌튼은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 수치를 언급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매년 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교구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나바호족(인디안부족) 선교 교구만이 교인 숫자가 증가했다고 보고됐으며 일부 국내 교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최대 75%의 감소를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국내 교구에서 출석률이 유사하게 감소했지만 특히 오레곤(-56.2%), 뉴어크(48.2%), 메릴랜드(49.4%), 이스턴(46.7%), 텍사스(50.8%), 노스캐롤라이나(-52.8%), 아이오와(-48.9%)에서 두드러졌다”라고 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공회는 교인 수와 평균 예배 참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단의 전반적인 진보적인 신학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예를 들어 성공회가 2003년 진 로빈슨을 교단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감독으로 안수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이에 항의하며 교단을 떠났다.

앞서 지난 2020년 성공회 사제이자 교수인 드와이트 샤일리 목사는 “현재의 감소 속도로 보면 성공회가 2050년까지 사실상 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이미경 기자

美 국무부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21년 연속 지정돼



북중 국경 지역의 철조망 모습. ©한국오피드어

미 국무부가 종교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CPC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로써 21년 연속 CPC로 지정됐다.

블링컨 장관은 “올해 명단에 포함된 12개국은 특히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며 “이번 발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CPC에는 알제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베트남이 지정됐다.

아울러 러시아와 민간 군사조직인 와그너 그룹, 이슬람국가(IS), 탈레반, 알샤바브, 보코하람이 종교자유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됐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히고 위협하며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며 “어떤 경우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경제 안보를 훼손하며,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 미국은 이러한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모든 국가의 종교·신앙의 자유 상태를 유심하게 살피겠다. 종교적 박해나 차별을 받는 이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영국, 10년전보다 기독교인 13% 줄고 무교인 늘어

英 통계청 2021년 인구조사... 이슬람·힌두교도는 증가



(좌측부터)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과 빅 벤. ©Marcin Nowak/ Unsplash.com

영국이 첫 인구조사를 실시한 1801년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인 인구가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무교인은 수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9일 영국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체 인구 6700만 명 중 기독교인은 2750만 명으로 46.2%로 집계됐다. 2011년 인구조사 당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영국인은 3330만 명(59.3%)이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기독교의 쇠퇴로 무신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서 인구의 37.2%인 2220만 명이 “종교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10년 전 1410만 명(25.2%)에서 급증한 수치다.

또 인구 조사는 영국 내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2011년 270만 명에서 2021년 390만 명으로, 힌두교도는 81만8천 명에서 1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종교를 가진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뒤바뀐 영국의 종교적 풍토에 대해 “노화, 출산율, 사망률, 이주 등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종교적 구성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며 “개인이 인구 조사에서 종교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인구 조사에서 종교에 대한 질문이 자발적인 것은 10년 전과 동일했다. 종교를 묻는 질문에 2021년에는 영국인 중 5600만 명(94%)이 응답한 반면 2011년은 5210만 명(92.9%)으로 다소 낮았다.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린다 우드헤드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조사가 “무종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영적이며 영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코트렐 요크 대주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영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던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조사 결과 이 나라에서 과

거보다 기독교인이 줄어든 사실이 놀랍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완수하는 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지났지만, 다른 설문 조사들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 진리와 지혜, 그리고 따라야 할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통계가 비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세속적 인본주의 장려단체 웨일스휴머니스트(Wales Humanists)의 코디네이터인 케이지 리딕은 성명에서 “웨일스는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덜 종교적인 지역이며, 새로운 발전은 아니지만 웨일스의 정치인들이 법과 공공 정책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웨일스에는 비종교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 “웨일스 전역에서 비종교적 지원이 되지 않는 병원 사목직에서부터 기독교 예배가 의무화된 학교 집회, 종교 단체로는 대표되지만 비종교적 신념은 그렇지 않은 많은 주(정부) 행사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은 여전히 교회와 기독교 자선 단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트렐은 “올겨울은 아마도 오래전보다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일부 사람들은 영적 희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지역 교회로 향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들을 위해 음식과 온정을 베풀 것이며, 크리스마스에도 수백만 명이 우리의 예배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김정은, 2년 연속 ‘올해의 독재자’ 후보... 시진핑·푸틴 등도 이름 올려



북한 김정은. ©KBS 보도화면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 단체가 진행하는 ‘올해의 독재자’ 투표에서 2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센서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한 ‘2022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자유에 관한 한 북한만큼 황량한 곳은 없다”며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주민들은 음식 대신 정치 선전(propaganda)을 먹고, 투표 용지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김씨 왕조의 잔인한 유산을 지키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계속 통치한다”며 “북한의

대다수 지역이 극심한 가난과 감시 아래 살고 있지만 김 총비서는 국제 무대에서 핵무기를 과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한다고 후보 등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후보로 올랐다.

지난해 이 투표의 ‘우승자’는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었다. 투표는 내년 1월 6일까지 계속된다.

박용국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찬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환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찬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OC예배: 수요일성경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200M), 66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중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0: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생가대안예배 오전 10:2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생가대안예배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장미예배 오전 11:20, 중보기도 오전 9:00(목), 청년예배 오후 1:30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영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찬양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4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전 6:00(화-금), 목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1

“파키스탄 교회가 일어서고 있다(2)”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지난주에 파키스탄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파키스탄 청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3:6절의 영성을 부여 주고 계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영성이 파키스탄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 그렇다. 그들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물질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어가는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본다. 대부분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불가촉천민들로 시작되었다. 멸시와 천대 속에 대를 이어 살면서 쌓인 정서의 깊은 곳에는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은 거의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 지난 40여 년간 신성모독법으로 인한 위협, 감옥살이와 살해로 인해 급진과 격무슬림들로 인해 생겨진 두려움은 상상보다 더욱 크다. 2억의 강성 무슬림 속에서 그들은 이제껏 공포 놀러 살던 존재들이었다. 그랬던 청년들이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선교 훈련(비전 스쿨)을 받게 되었다. 10주 과정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성, 기도와 종족 셀링, 영적 전전과 세계 기독교, 성경속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면서 그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 깨달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인생 처음으로 그들은 이슬람이 강한 민족들이 사는 도시와 국가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경험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느낌이다. 복음에 적극적이다. 주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이슬람 미전도 종족을 향한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이다. 지난 2020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인 청년을 한 과격한 무슬림 청년이 분노하여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제

막 선교 부흥이 시작된 파키스탄에 순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형제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형제의 아버지가 조문 온 현지 영혼들 앞에서 “우리 파키스탄 교회에 순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나 또한 남은 생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귀한 말을 남겼다.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의 영은 더욱 뜨겁게 달구어졌다. 파키스탄 현지 교회들도 한국이나 미주처럼 두 부류의 교회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선교 부흥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고 세계 선교의 뜻대로 열방을 향하는 교회들과 현지 교회 안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로 교회 주변 자민족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의 형태이다. 그러나 선교 비전을 붙잡은 교회들은 한국이 비전으로 세웠다가 슬그머니 포기한 2030-10만 선교사 파송 비전을 붙잡았다.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며 영성, 기도와 종족 셀링, 영적 전전과 세계 기독교, 성경속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면서 그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 깨달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인생 처음으로 그들은 이슬람이 강한 민족들이 사는 도시와 국가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경험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느낌이다. 복음에 적극적이다. 주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이슬람 미전도 종족을 향한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이다. 지난 2020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인 청년을 한 과격한 무슬림 청년이 분노하여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람들은 프랑스 루시용의 젊은 백작 버트람을 속 빈 호두라고 불렀습니다. 버트람 백작의 아버지 루시용 백작은 정의로운 인품과 날카로운 식견으로 존경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버트람 백작의 어머니도 훌륭했습니다. 늘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잘못에 대하여 과감하게 지적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아들 버트람은 너무 탄탄이었습니다. 루시용 백작도 그의 아내도 아들인 버트람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루시용 백작 부부에게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의심하며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루시용 백작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버트람이 정신을 차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버트람은 아버지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농담하며 깔깔댁니다. 아버지를 애도하지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트람은 아버지 죽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버트람은 사사건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나면 바이올린 연주 시범을 보이려 했고 재봉사를 만나면 재봉의 전문가처럼 행세했습니다. 프랑스 국왕이 루시용 백작의 친구였습니다. 왕은 친구 죽음을 슬퍼하며 또 후계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버트람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를 왕의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왕이 버트람을 부르자 버트람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해 주기를 기대했고 골치 아픈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내심 반겼습니다. 루시용 성에 ‘제라르 드 나르본느’라는 유명한 의사의 딸 헬레나가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루시용 백작 부인이 중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제라르 드 나르본느 박사가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부인이 먼저 죽더니 의사도 곧 죽었습니다. 올데갈데없는 천애의 고아 헬레나를 루시용 백작 부인이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버트람과 헬레나는 같이 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헬레나와 버트람을 오누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레나는 자신의 소원은 버트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두 사람의 결혼을 명령했고, 왕명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 부부가 되었으나 버트람은 헬레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헬레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버트람은 헬레나를 떠날 생각만 합니다. 마침 전쟁이 일어나자 버트람은 용병으로 자원입대합니다. 헬레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지 순례를 떠나 용병 주둔지 플로렌스 펜션에서 머무르며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펜션 주인의 딸 다이애나를 유혹하고 있는 버트람 소식을 듣습니다. 헬레나가 알아 보니 다이애나는 자신을 농락하고 있는 버트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다이애나와 짜고 자신이 다이애나의 옷을 입고 다이애나처럼 행동하며 버트람 방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헬레나는 버트람과 하룻밤을 보내며 결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 약정으로 버트람의 반지를 받아내고 왕이 주신 반지를 버트람 손에 끼워줍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온 버트람은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왕의 추상같은 명령에 아내와 함방합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유쾌한 희극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의 줄거리입니다. 작품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 작품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s Well That Ends Well)>는 제목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8장 28절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말을 이룬다)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지혜와 끈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는 헬레나의 지혜와 끈기를 근사하게 그려냅니다. 무도한 버트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헬레나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힘을 보여줍니다. 셋째, 잘 끝내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좋은 결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기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지역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말씀순종의 신앙을(2)

신명기 8:1-1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들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 하시느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찌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10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라

3.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절대주의 신앙이 되라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시고 해변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확인시켜주실 필요를 느끼시고 한낮(11-12시쯤)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 한낮에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닥이 보이고 고기들 또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도망 가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나 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특히 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에 불붙리기 시작했고 사료잡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도 밤새 헛고기를 했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한낮이었음에도 물고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오라하여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 삼기위해 나타내신 말씀권능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믿도록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입체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 얼마나 서둘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가를 잘 믿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낮추시고 굽게 하십니다.

4.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굶으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겠으나 영적으로는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옥수동에서 개척할 당시에도 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금식시키는가보다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시고 그런 후에는 또 다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먹이시는 손길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뜰히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구나 하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감사드리곤 하였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직분을 맡길 때 목에 힘을 주고 '곤란한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살피시나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조건을 위해 정면으로 부인하니 '너는 소망이 없어' 하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거두시고 너의 맘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거나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 겸손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신을 목적으로 살면 안됩니다. 영으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소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만하면...

4절 "이 사십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4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벌의 옷을 가지고 온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우리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그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길쌈도 못하고 구름이 올라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비비며 천막거두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막을 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또 올라가면 다시 천막을 거두고 또 떠나야 하는 처지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밭도 부들지 않도록 하시고 40년간 밭병도 안나게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도, 건강도, 먹여 살리는 것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10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느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

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시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 분천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시의 주식은 밀, 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려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과일과 꿀과 벌도 많은 기름진 곳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곳은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심지어 땅 속에서도 보배로운 것들을 캐낼 것이며 복에 복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더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뿌리가 깊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고 순교할 믿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는것 같은 명령이라 할찌라도,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RACE MISSION UNIVERSITY

2023년 봄학기 개강 (2월 6일)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12월 31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2 학교 소개 설명회 (1차)12월 19일(목) 오후 4시, (2차)1월 17일(화) 오후 4시 * 장소: MC 310 강의실 *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 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실시간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3 겨울 릴리 공개 특강 - 1월 9~31일(월,화) 4주 5:00~9:30 pm - 선교와 목회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 1월 7일~2월 4일(매주 토요일 9:00am~6:00 pm) - 디지털 목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실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3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Tel :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강준민 칼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 삶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비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공하려고 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농작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원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 L. 오스본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스본 목사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선교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젊은 목회자에게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게 "씨앗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엔 큰 능력을 행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씨앗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해 주신 것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을 때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고, 큰 숲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나머지는 작은 것을 소중히 합니다. 날마다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이 한 걸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만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집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

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을 간파하고 핵심을 파고들 줄 압니다. 핵심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어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입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입니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한 것입니다.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같고 닦은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수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입니다. 훌륭한 성과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행복도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온 작은 행복을 환영하십시오. 작은 행복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때 그 작은 행복이 미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찾아온 작은 행복을 무시할 때 우리는 행복의 맛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작은 것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소한 것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

래서 작은 행복을 무시하는 사람은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의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행복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날마다 과거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부터 날마다 떠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선택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결정한다는 독일어 속에는 이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정은 무언가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연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이별했습니다. 친척들과 이별했습니다. 그가 이별할 때 필요했던 것은 결단하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히 11:8).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중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 12:5하). 긴 여정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배우십시오. 날마다 소중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밍크 담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대학교 때, Touring Choir(여행합창단)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부활절 방학 동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공연하러 다니던 저희는 공연을 마치고 콘서트에 참여했던 교인들의 집으로 흩어져 민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그분들이 저희를 다시 교회로 데려다주면, 다음 공연 장소로 이동하면

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번은 오하이오 리마의 한 침례교회에서 공연하고, 교인 집에 갔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제프라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찡눈 내면서 놀리자, 당황하던 부모의 모습이 선합니다. 난생처음 미국인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때 침대 이불은 어떻게 덮고 자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매트리스에 장착 시트(fitted sheet)를 덮고, 그 위에 톱 시트(top sheet)를 깔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맞는 얇은 담요를 덮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못 하지만 수많은(?) 베개를 얹어 놓았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살 때도 완전 한국식으로 살았습니다. 침대에서 자면서 큰 담요 한 장으로, 추우면 두 장으로 지냈

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톱메이트가 속으로 꽤나 웃었을 것 같습니다. Touring Choir 다녀온 후, 저는 그 미국인 집에서 본 대로 정식으로 침대를 셋업하기 시작했고, 시트와 시트 사이로 몸을 넣고 자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밍크 담요를 생각하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낮에는 고스톱 치는 방식, 저녁에는 늦은 귀가하는 아빠들을 위해 따뜻한 밥 식지 말라고 공깃밥을 파묻는 아내의 따스한 정성을 대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갓 이민 온 티를 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밍크 담요 같은 물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것도 빨간 철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시편만 추가한 휴대용 성경책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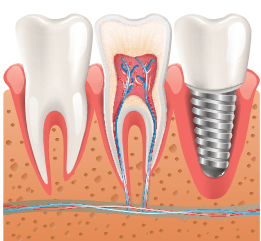
거운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책도 하드 카피보다는 e-book으로 읽는 시대, 이제는 성경책도 셀폰으로 찾아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정겨운 성경책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봐서 해진 성경책은 아마, 박물관에 가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밍크 담요의 추억처럼 내 손에 익은 정겨운 성경책을 붙들고 말씀을 읽든지,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열어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따뜻한 밍크 담요 같은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 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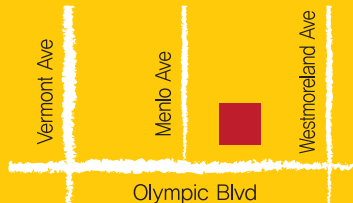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진유철 칼럼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156명이 사망하는 암사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들 놀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겠습니까? 오래 전부터 관련법규를 어기며 적당히 관용을 거라고 묵인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한 일들이 싸이고 싸여서 바로 그날 엄청난 사고로 나타나게 되

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말씀처럼, 지금 심고 있는 것을 그날 거두는 것이기에 심판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천국과 상급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일 수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산은 그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남기는 흔적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화장실에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감동적인(?) 글이 붙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자리에도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흔적을 지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현대 과학수사로 발견할 수 있는 흔적들은 남게 된다고 합니

다. 심지어는 백골이 된 시신에도 흔적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12월에 돌아보는 내가 남긴 2022년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의 흔적, 어제 하루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남녀 노소 빈부귀천이 다 다르고 시대와 환경이 다른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모래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남듯이 다 자신만의 삶의 흔적을 남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일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맹인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지금까지도 모두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 세

리 장이었지만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과 동행함 이룸으로 허물과 죄를 덮는 은혜와 거둬냄의 흔적을 갖는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무학자였지만 예수님을 순종하여 동행하므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삶의 흔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포행자요 휘방자요 핍박자라는 치명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의 흔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일 저녁 이영훈목사님 LA축복성회와 한 주간의 특새와 정기공동의회를 가지므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꼭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흔적만을 가득히 남길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동식 칼럼

제자훈련이 남긴 질문을 미셔널 처치가 답한다면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2022년도를 돌아보니 참석했던 두 개 컨퍼런스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CAL(Called to Awaken the Laity) 세미나(Apr 25-30)요, 다른 하나는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있었던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컨퍼런스(Nov 14-15)였다. 전자는 제자훈련 세미나였고, 후자는 미셔널 처치(선교적 교회) 세미나였다. 감사하게도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남겨진 질문, 즉 ‘제자훈련을 했음에도 왜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미셔널 처치에서 그나마 조금 찾을 수 있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자훈련이 지향하는 목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훈련 후 실제로 나타난 변화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개인 경건생활에 충실하게 되었다’, 혹은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다’였다. 목표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

았다. 이 간극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목표와 결과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실제 삶과 연관된 새로운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는 제자훈련에 평생 바치신 옥한흠 목사님이 이미 알고 제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하다.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옥목사님은 한국 교회 영적 성장의 부작용 3가지를 ‘허수, 허세, 허상’으로 보았다. 이 중 허상은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때문에 나온 것으로 진단한다. 다시 말해 제자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키우는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하기 위해, 교회만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본 목적이 아니다. 제자훈련으로 성도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니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살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상을 아우르는 통전적 시각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선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벽에 붙어 있는 사명선언문은 이렇다.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제자훈련의 본질과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어라 생각한다.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이

유다. 그럼에도 지금의 제자훈련의 모습 속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약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게 할 수 있을까?

제자훈련이 막혀 있는 답을 “미셔널 처치”로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제자 훈련해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성도”가 되는 길일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실천”을 강조했던 진보 진영의 논리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자”는 선교단체들의 논리가 묘하게 이어지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MICA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궁금했던 것은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가’였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을 정의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함께 어울리고 network를 형성하는 데 더 무게 중심이 있었다. 그 말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 내린 다음 무언가를 실천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말이었다. 서로 만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제자훈련과 미셔널 처치의 공통 지향점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제자로 살기

위해 살아 있어야 한다. ‘피투성이로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겔 16:6). MICA 컨퍼런스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신선하게 배운 인사이트 중 하나는 Neil Cole 교수가 강의 중 제시한 ‘잔디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죽은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살아있는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잔디에 물을 주자. 비록 작을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잔디를 살리자. 그 잔디가 전체 잔디를 살릴 것이다.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미셔널 처치를 지향한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은혜받고 살아난 성도가 세상 잔디밭으로 번져 나가자. 그것이 제자훈련을 제자훈련 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박준 시인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 새는 새장이 아니라 나무에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문장을 패러디 해 본다면, 교회가 성도와 함께 사는 법은, 교회에 성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마당에서,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과 미셔널 처치의 연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온전한 제자 될 수 있기를 미약하게나마 소망해 본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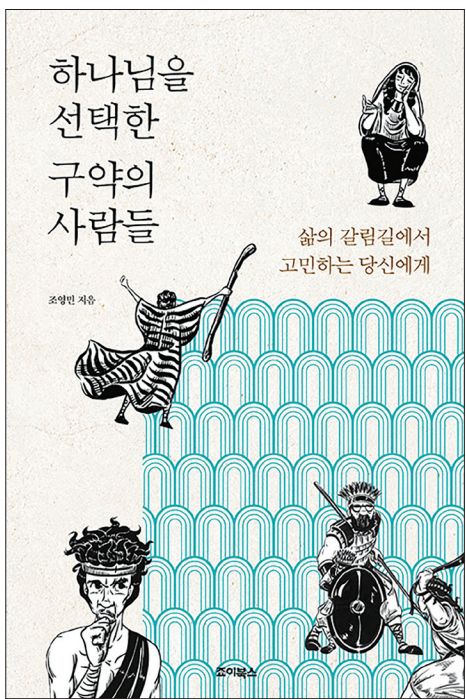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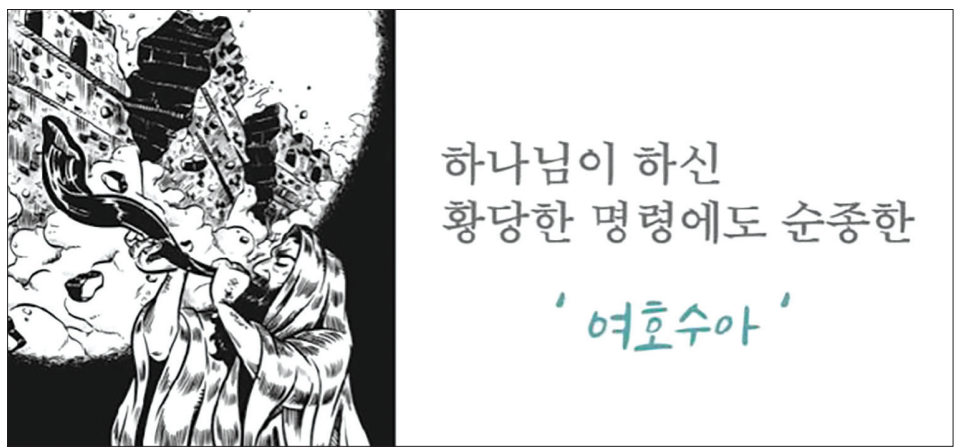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삶의 길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구약 인물 13명에게서, 오늘날 우리 삶 속 '선택' 기준을 배우다



것을 알게 된다.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선택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변함이다. 변하지 않는 기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기준, 어떤 시대와 논리에도 앞서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하는 선택의 갈등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된다. 이 불변하는 기준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조영민 목사가 이번에 새롭게 출판한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혼탁하고, 갈등이 많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 세상과 다른 기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한 민족의 지도자임을 드러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 '선택 장애'가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함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기 위함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드러나고,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고, 박해당할 때 의인이 가려진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조영민 목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약 속 인물 13명을 선택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이다. 비록 내가 구한다 해서 바로 응답되는 일은 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선택에서 갈등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상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조영민
조이북스 | 260쪽

하나님과 친밀함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이라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에 따라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평탄한 삶으로 전환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택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선택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선택을 통해 내가 감추고 있었던 것을 드러나기도 한다. 반대로 선택은 포기함을 내포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선택의 반복적 훈련 과정이라는 학습을 통해 우리 일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함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교육하게 되는 것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는

이를 위해 13명의 위대한 구약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위대하다고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는 이름도 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야엘, 삼손, 한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느헤미야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을 조영민 목사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고, 모세의 부모는 네 가지의 믿음을 선택했다. 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자녀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꿈,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 이런 부모의 선택에 의해 바로의 궁전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모세의 선택은 바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이 책에서는 흥해를 의미한다) 믿음을 선택한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우게 된 절대 순종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聖戰)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성품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 순종이었다. 사사기 속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드러낸 드보라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순종하지 못한 바락을 비교한다. 야엘은 하나님이 주신 적극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택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삼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기도를 선택했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사야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택을 한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10 나.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JOHN 10:10 b.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귀국자전거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3)

<재벌집 막내아들> 환생 신드롬 속, '지브리 같은' 일본 정령신앙 흔적

한국인들, 불교나 무속 환생론 주된 내세관 삼아 대중문화 콘텐츠 자주 활용되는 이유, 친숙해서 일본 신도, 자연물과 사물 자체 갖든 정령 중시 기독교적 내세관 관심과 신뢰, 점점 약해진 방증

◆한국의 환생론: 전통적 내세관인 환생이론의 영향력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설정과 서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통쾌한 복수극 이면에 자리잡은 반재벌 정서와 권리지향적 정치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한 가지 더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기억을 가진 환생'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장르소설 및 드라마로서, 일본식 종교성을 그 속에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로부터 환생 이론은 동서양 양쪽의 종교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서구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플라톤 철학에 의해, 동양에서는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 환생론이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자리잡아 왔다.

환생이론의 종교적 영향력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데, 특히 동양에서 더 그렇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내세관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한 덕분에, 환생에 대한 믿음이 상당부분 흐려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20세기 들어와서도 사이언톨로지 같은 신흥종교가 플라톤 환생론을 기묘하게 비틀어 교세를 확장해 왔지만, 서구 대중들의 인식 전반에서 환생론은 그리 매력적인 내세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 환생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설명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속화와 무종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의 말과 생활 속에는 환생론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푸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불교 환생론이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에 깊게 배여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세를 생각할 때도 은연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부활과 심판, 영생과 영벌이라는 기독교적 내세관을 굳건하게 믿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불교의 환생론이나 애매한 형태의 무교(巫教) 환생론을 주된 내세관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는 이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

난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환생에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대중의 내세관에 친숙하기에 공감과 인기를 쉽게 얻는 것이다.

환생론은 최근처럼 장르문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여러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자주 소재로 활용되었다. <은행나무 침대>(1996), <번지점프를 하다>(2001) 같은 작품이 환생을 주된 소재로 담았고,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삼아 서사를 전개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역시 헤어 나올 수 없는 윤회의 굴레 속 환생을 주제로 선정한다.

다만, 최근 유행하는 장르소설과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진 드라마, 영화 속에 묘사된 환생은 기존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보여준 환생과는 그 모습이 크게 다르다.

환생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통상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동시에 각자의 삶에 고난과 애환이 깃든 연원을 설명해주는 것이었던 데 비해, 최근 장르문학과 장르문학 기반 영화 및 드라마에서의 환생은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슬립을 수반하면서 전생의 기억이나 재능을 온전히 재활동할 수 있는 극적인 인생역전 기회로 인식된다. <재벌집 막내아들> 역시 환생에 대한 이런 표현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의 환생론: 신도 특유의 정령신앙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환생론

이 새로운 유형의 환생에 대한 인식이 장르문학 속에 자리잡게 된 데는 일본의 장르소설이라 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상 일본 작가들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 서구의 콘텐츠를 가져와 일본식으로 변형해 인기작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차원이동 소재 콘텐츠가 일본에서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1976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의 폴>은 루이스 캐럴의 명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신비한 세계로의 여행'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신비의 세계 엘하자드>(1995)와 <천공의 에스카플로네>(1996) 등이 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이 세계 모험기라는 소재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JTBC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애니메이션에서 인기를 얻은 차원이동 소재는 그대로 일본의 라이트노벨로 옮겨져 왔는데, 이 차원이동 소재 소설들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소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로 전이될 때 원래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새로운 인간 혹은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작품들이 등장한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소재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의 전통종교 신도는 고유의 애니미즘, 즉 정령사상에 불교의 환생론을 융합시킨 내세관을 가르친다.

한국의 무교가 통상 샤머니즘, 즉 혼령과 점진하는 샤먼의 역할을 중시하는 데 비해, 일본의 신도는 샤먼보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물과 사물 자체에 깃든 정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도에서 정령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다. 산이나 바다, 강과 같은 거대한 자연물부터 인간이나 동물을 포함한 생물들, 그리고 나무나 풀 같은 식물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물에도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신도의 영혼론이다.

그리고 이 영혼은 생물의 죽음이나 사물의 파괴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 혹은 환생의 과정을 거쳐 다른 생명체 혹은 사물에 새롭게 깃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일본의 정령사상을 대중문화 작품으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아티스트로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히야오를 지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최근 일본 라이트노벨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 장르문학 속의 환생은 불교적 입장에서 환생을 버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현생의 삶을 벗어나 보다 나은 형태의 삶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애니미즘적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

다. 그리고 그 기원으로는 불교의 환생론과는 구별되는 일본 신도의 정령신앙을 지목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고유의 정령신앙을 기반으로 미화(美化)된 환생에 대한 인식은 현실 인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자기 삶의 역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세관 정착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애초 윤회와 환생을 전통적인 내세관으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인생역전을 위한 환생이라는 소재는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온다.

물론 드라마 한 편으로 인간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사고관이 뒤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는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 그려진 환생의 모습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단 한 차례 허락된 일생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부활을 위해 진력(盡力)하는 삶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어게인 마이 라이프>나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작품들이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과 인기를 얻는 현상은, 바뀌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세관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일전 국내에서 기독교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절 크게 약화됐던 환생에 대한 믿음이 대중문화가 부여하는 매력을 힘입어 되살아나는 현재 상황은,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어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원인은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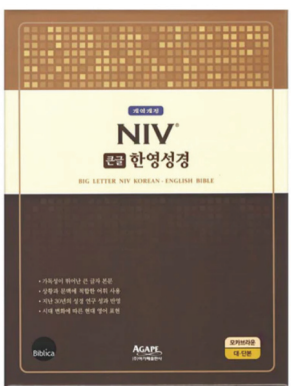


연말 연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제는 기독교 제품을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3055 W 7TH LOS ANGELES, CA90005 (올코샵 내)

최대 6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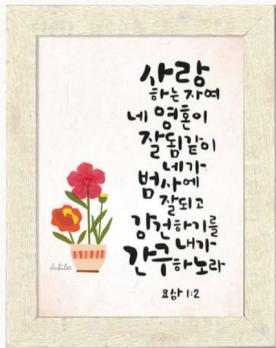


성경
및
기독서적



건강
식품
기프트

화장품
기프트



생활용품
기프트



양말
기프트



과일
기프트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Location.
3055 W. 7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올코샵 안)